



커피와 발기력

세상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약은 무엇일까. 그 것은 놀랍게도 카페인이다. 미국 성인들의 85% 이상이 정기적으로 카페인을 섭취하고, 평균 섭취량은 하루에 200mg이다.

카페인을 커피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원두커피 한잔에 100mg, 인스턴트 커피에 75mg, 홍차에 50mg, 콜라에 50mg, 코코아에 25mg의 카페인이 보통 함유되어 있다.

아주 오래 전부터 남미에서는 카페인이 함유된 음식을 먹어 왔고, 중국에서는 기원전 2천여 년 전부터 차를 알고 있었다고 한다. 16세기 경에 유럽으로 건너간 커피와 차는 급속히 전 유럽에 퍼졌다. 그 후 19세기 말경, 코카콜라와 펄시콜라가 태어나면서 카페인 소모량은 급격히 늘어났다.

하지만 70년 대에 카페인에 의한 약물의존이 알려질 때까지 카페인에 의학계의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적당량의 카페인은 피곤하거나 권태스러운 감정을 어느 정도 좋게 해주지만 지나친 카페인을 불안 흥분을 일으키고 약물의존을 일으킨다.

예민한 사람은 하루 250mg 이상의 카페인을 섭취하면 안절부절 못하고 흥분이 되고 잠이 안 오고 심장이 똬다. 심하면 불안장애에 빠진 노이로제 환자와 같이 된다.

일부에서는 역설적으로 커피를 마시면 안정을 찾기도 하는데 주의력이 산만한 사람, 과잉행동장애를 보이는 사람들이 특히 그렇다.

하루 5잔 이상의 커피는 심장질환의 위험성을 배가시키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킨다. 또, 여성의 경우는 소변으로 칼슘을 배출시켜 3배 이상의 골반골절을 유발을 시킨다.

하루에 3잔 이상을 삼가고 불안장애, 공황장애, 수면장애, 임신, 심전도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특히 삼가야 한다.

카페인을 신경전달 물질의 하나인 아데노신의 활동을 억제시켜 교감신경계의 반응을 촉진한다. 이 아데노신은 음경해면체에 직접 주입하는 경우에 발기를 일으키는데 카페인은 이 아데노신을 억제한다. 과량의 커피를 지속적으로 먹는

경우 정상시의 음경해면체의 강도를 떨어뜨리고 발기력도 떨어뜨린다.

음식점에는 없지만 다방에는 항상 재떨이가 있듯이 커피를 마시면 담배를 피우고 싶은 욕망이 강해진다. 담배는 당뇨병과 더불어 발기력에 가장 나쁜 영향을 끼쳐 해면체 조직을 직접 파괴한다.

인간의 성적 욕망인 리비도를 주로 관장하는 것은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물질이다. 담배를 피우면 일시적으로 이 도파민을 올려서 성욕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 같이 보인다. 마찬가지로 커피도 이 도파민 계통을 자극하여 일부의 노년기 사람들에게는 커피가 성적 흥미를 약간은 자극한다는 보고도 있기는 있다.

커피를 갑자기 끊으면 그 반작용으로 뇌혈관이 확장되어 편두통 같은 혈관성 두통이 일어나기도 한다.

시중에서 파는 두통약에는 카페인이 평균 100mg씩 들어 있다. 그래서 두통약을 먹으면 잠이 안 온다는 얘기를 하는 환자들도 흔하다.

하지만 카페인은 강력한 살충제로 쓰였고 다른 살충제의 효능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도 쓰였다. 소량의 카페인은 곤충을 안절부절못하게 만들고 과량에서는 죽이는 것이다.

일부 보고에 의하면 우리나라 자판기에서 파는 커피 한잔의 카페인 함유량이 원두커피보다도 훨씬 많은 양을 넣었던 모양이다. 하루에 두세 잔 이상만 마셨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아편에 중독되는 것처럼 다시 찾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 성욕을 감퇴시키는 약

중세의 수도자들은 불모의 사막이나 캄캄한 동굴에서 은둔하며 기도생활을 했다. 그들은 육체적인 유희에 시달리다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지경이 되면 눈물을 흘리면서 여자

가 있는 마을로 달려가기도 했다.

그러한 일부 수도자들은 몸에 상처와 부스럼이 생겨나고 급기야 얼굴이 부풀어오르면서 온몸의 털구멍에서 고름이 흘러내리는 일도 생겼다.

그들은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자신이 저지른 죄를 후회했다. 하느님이 금욕의 계명을 배반한 자신들에게 문둥병이라는 벌을 내렸다고 믿은 것이었다.

인간의 억제할 수 없는 성욕을 얘기할 때 자주 드는 예가 바로 카잔차키스가 쓴 자서전적 에세이인 [성자의 병]이다. 예부터 인간의 성욕을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가 제시되었다.

플라톤이 제시하였던 잔물에 목욕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여러 가지 약초나 술을 많이 마시는 방법도 사용되어 왔다.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군대나 교도소 등에서는 성욕을 억제하기 위해 음식에 초석(질산칼륨)을 넣는다는 얘기도 있다. 그러나 초석은 성욕이나 성기능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 다만 이뇨와 음식의 부패를 막는 데 효과가 있다.

60년대 중반부터는 남성의 성욕을 떨어뜨리는 방법의 하나로 여성호르몬의 일종인 프로제스테론과 사이프로테론을 사용했다. 그 대상은 주로 성범죄자들이었다.

이 약들은 남성호르몬의 일종인 테스토스테론의 혈중 농도를 떨어뜨리고 성적 환상을 억제하며 성충동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킨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게 확실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잠자고 있는 동안에 나타나는 생리적인 성욕만 억제할 뿐이다.

깨어 있는 동안의 인간의 성충동은 동물과는 달리 남성호르몬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기 때문이다.

고혈압 치료제로 쓰이는 일부 약은 성적 장애를 일으킨다.

이뇨제, 알파 차단제, 베타 차단제가 그런 약이다. 그러나 프라조신이나 칼슘채널 차단제 등은 발기부전을 상대적으로 덜 일으킨다.

고혈압 약 이외에도 성욕을 감소시키는 약은 많다. 위궤양에 쓰이는 시메티딘이나 관절염에 쓰이는 인도메타신을 비롯하여 복통에 쓰이는 바클로펜, 일부 녹내장 약과 먹는 무좀약인 케토코나졸도 성적 능력에 문제를 일으킨다.

이런 약물에 의한 발기부전의 증상은 기질적인 문제에 의한 발기부전과 흡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약을 남용하고 보약을 좋아하는 경우에는 자신이 먹는 약 때문에 성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고혈압이나 당뇨병을 치료하기 위한 약물이라 하더라도 약물에 따라 성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다르므로 의사가 처방을 내리기 전에 '성적 능력에 보다 덜 영향을 미치는 약'을 환자 자신

이 요구할 수도 있다.

약물 가운데 남성호르몬 억제제보다 더 강력한 성욕 억제제는 정신분열증의 치료에 쓰이는 항정신병 약물과 우울증 치료에 쓰이는 항우울제이다.

이것은 남성 성기의 발기라는 아주 간단해 보이는 생리적인 기전이 다른 어떤 부분보다 대뇌의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는다는 걸 말해주는 증거이다. **ZZ**



〈편집자 주 : 이 원고는 설현욱 박사의 인터넷 사이트(<http://sex-academy.com>)에 게재된 원고를 필자의 동의하에 실게 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02-512-1101)〉